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미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Mi-Ja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Science & Technology

요약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대학생 296명이다.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의사소통능력 네 변수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정도가 증가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졌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1.9%였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로서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및 외상 후 성장 정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의사소통능력,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ost-traumatic growth and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 The data collecting period is from April to May, 2017, and the subjects are 296 nursing students in D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ost-traumatic growth, and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Also, a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increased, communication skill improved. The explanatory power of regression model was 51.9%.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fforts to impro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as a strategy to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establish therapeutic relationships with patients as nurses.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ost-traumatic growth, Communication skill, Nursing students

1. 서론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돌봄의 대상자에 게 정신적, 육체적인 간호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간

1.1 연구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김미자(kmija67@daum.net)

Received August 23, 2017

Revised September 11, 2018

Accepted September 14, 2018

Published Septembere 30, 2018

호를 제공하는데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 개인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수립이 되도록 도우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대학의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시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3]. 이렇듯이 간호대학 교육에서 의사소통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4-9],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연령 및 사회계층의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1,10].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개인의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인 감정 성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하며 자신의 감성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11]. 이러한 능력은 간호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시 그것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내적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2].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지적 능력 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진정한 공감능력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요구된다 [13,14]. 이러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생리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이 어려운 역경과 위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라 정의된다. 즉 회복탄력성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응능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여도 회복(bounce back)하기 위해 긍정적 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16]. 선행연구[10,12] 결과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이하 PTG)은 정신적 외상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이 외부의 충격적인 삶의 사건과 그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발전을 체험하고, 이로 인하여 이전이 기능을 회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17-20].

이전에는 이러한 외상사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집중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지만[21], 최근에는 사람에 따라서 외상사건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 지각의 변화를 경험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외상 후 타인에 대한 친밀감, 신뢰, 연민, 동정, 친사회적 행동 혹은 자기노출 등의 증가를 경험하며 대인관계가 확장되고, 외상 후 인생 목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증가하게 되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는 등 이전보다 더 적응적인 모습을 갖기도 한다[18,22]. 스트레스를 받은 개인이 그러한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21].

이렇듯이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인이다[23].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하여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직접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서에 서명을 한 대상자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 및 누락을 제외한 296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217명이었으므로 필요한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며 내용은 일반적 특성 9문항, 감성지능 16문항, 외상 후 성장 16문항, 회복탄력성 25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으로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 [24]가 개발한 도구를 Lim [11]이 번역하여 사용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자기의 감성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의 활용' 4문항, '감성의 조절' 4문항 등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7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1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요인 별로 0.83~0.90이었고 Lim [11]의 연구에서는 0.81~0.91까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감성

지능의 신뢰도는 0.9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자기의 감성이해' 0.89, '타인의 감성이해' 0.85, '감성의 활용' 0.84, '감성의 조절' 0.87로 나타났다.

2.3.2 회복탄력성

Connor와 Davidson [25]에 의해 2003년에 개발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를 Baek et al. [1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0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Baek et al. [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3이었고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3으로 나타났다.

2.3.3 외상 후 성장

Tedeschi와 Calhoun [17]이 개발한 도구를 Song et al. [18]이 국내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PTGI는 '자기자각의 변화' 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5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2문항으로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이다. 변화의 정도에 대해 '전혀 아니다'가 0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 범위는 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0.92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외상 후 성장의 신뢰도는 0.9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자기자각의 변화' 0.89,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0.82,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0.74,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 0.71로 나타났다.

2.3.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et al. [26]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Hurr [27]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를 Lee [28]가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

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urr [9]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0.72, Lee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신뢰도는 0.92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의사소통능력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의사소통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Pearson's 상관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파악하며 감성지능,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5 연구윤리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2017-001-001)를 거쳐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피험자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자료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31명(10.5%), 여자 265명(89.5%)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무교 154명(52.0%), 기독교 91명(30.7%), 불교 25명(8.5%), 천주교 22명(7.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상 11명(3.7%), 중 226명(76.4%), 하 59명(19.9%)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과목 수강경험은 있음 264명(89.8%), 없음 30명(10.2%)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경험은 있음 40명(13.5%), 없음 256명(86.5%)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의사소통양식은 인성지향 소통 230명(77.7%), 지위지향 소통 46명(15.5%), 명령지향 소통 20명(6.8%)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미흡한 수준 149명(50.3%), 만족할 만한 수준 142명(48.0%), 우수한 수준 5명(1.7%) 순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만족 99명(33.4%), 보통 166명(56.1%), 불만족 31명(10.5%)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동기는 자발적 지원 153명(51.7%), 취업이 잘 되어 80명(27.0%), 지인 추천 33명(11.1%), 돈을 벌려고 18명(6.1%), 봉사하는 직업 12명(4.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1	10.5
	Female	265	89.5
Religion	Christian	91	30.7
	Buddhism	25	8.5
	Catholic	22	7.4
	Atheism	154	52.0
	Other	4	1.4
Economic status	High	11	3.7
	Middle	226	76.4
	Low	59	19.9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264	89.8
	No	30	10.2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40	13.5
	No	256	86.5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s-centered	20	6.8
	Position-centered	46	15.5
	Person-centered	230	77.7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5	1.7
	Satisfactory	142	48.0
	Not satisfactory	149	50.3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99	33.4
	Neutral	166	56.1
	Dissatisfied	31	10.5
Motivation of admission to college	Recommendation of others	33	11.1
	Own decision	153	51.7
	For employment	80	27.0
	Service job	12	4.1
	Economic reasons	18	6.1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감성지능은 평균 79.84±11.68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자기의 감성이해 20.97±3.89점, 타인의 감성이해 21.43±3.37점, 감성의 활용 18.83±4.04점, 감성의 조절 18.60±4.20점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87.70±13.62로 나타났고 외상 후 성장은 평균 48.98±11.50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자기자각의 변화 18.97±4.90점, 대인관계 깊이 15.94±3.98점, 새로운 가능성 9.59±2.40점, 영적관심의 증가 4.48±2.61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55.38±8.28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s (N=296)

Variables	M±SD
Emotional intelligence	79.84±11.68
Self-emotion appraisal	20.97±3.89
Other's emotion appraisal	21.43±3.37
Use of emotion	18.83±4.04
Regulation of emotion	18.60±4.20
Resilience	87.70±13.62
PTG	48.98±11.50
Changes of self perception	18.97±4.90
The increase of interpersonal depth	15.94±3.98
Finding new possibilities	9.59±2.40
The increase of spiritual interest	4.48±2.61
Communication skill	55.38±8.2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감성지능에 있어서는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저 가족의 의사소통양식에 따라서는 인성지향 소통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

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우수한 수준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의 경우 보통,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지원이거나 봉사하는 직업으로 인해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에 있어서는 종교,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인 경우 무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의사소통양식에 따라서는 인성지향 소통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우수한 수준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의 경우 보통,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지원이거나 봉사하는 직업으로 인해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는 종교,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먼저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인 경우 무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의사소통양식에 따라서는 인성지향 소통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우수한 수준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의 경우 보통,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지원이거나 봉사하는 직업으로 인해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는 경제상태,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상인 경우 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의

사소통양식에 따라서는 인성지향 소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우수한 수준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의 경우 보통,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지원이거나 봉사하는 직업으로 인해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6)

Characteristics		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TG		Communication skill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31	83.68±12.43	1.94 (.053)	93.84±14.18	2.68** (.008)	52.87±12.27	2.00* (.046)	57.19±7.51	1.29 (.198)
	Female	265	79.39±11.54		86.98±13.40		48.52±11.34		55.17±8.35	
Religion	Christian ^a	91	81.52±11.79	.816 (.516)	91.85±13.35	3.30* (.012) d<a	53.52±11.73	7.53*** (.000) d<a	56.32±8.17	.45 (.776)
	Buddhism ^b	25	79.44±10.08		86.48±11.33		50.08±6.68		55.28±8.42	
	Catholic ^c	22	78.36±11.84		87.09±12.03		51.45±10.04		54.82±10.59	
	Atheism ^d	154	79.04±11.88		85.49±13.90		45.74±11.20		54.91±7.85	
	Other ^e	4	83.00±10.58		89.25±15.02		49.75±13.87		56.00±14.26	
Economic status	High ^a	11	83.27±8.28	2.19 (.113)	92.36±13.16	1.21 (.300)	55.55±16.10	1.88 (.155)	60.09±8.43	3.06* (.048) c<a
	Middle ^b	226	80.35±11.52		87.94±13.52		48.74±11.40		55.58±8.10	
	Low ^c	59	77.22±12.54		85.88±14.03		48.64±10.71		53.73±8.65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264	80.08±11.71	1.13 (.259)	87.87±13.60	.60 (.552)	48.90±11.64	-.23 (.821)	55.41±8.36	.09 (.931)
	No	30	77.53±11.73		86.30±14.09		49.40±10.54		55.27±7.94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40	78.00±11.85	-1.07 (.286)	88.53±13.54	.41 (.680)	49.93±10.72	.56 (.576)	53.08±7.95	-1.90 (.058)
	No	256	80.13±11.66		87.57±13.66		48.83±11.63		55.74±8.29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s-centered ^a	20	69.90±14.72	12.65*** (.000) a<b<c	77.60±13.24	13.51*** (.000) a<b<c	42.35±11.74	9.80*** (.000) a,b<c	46.15±8.13	18.41*** (.000) a,b<c
	Position-centered ^b	46	76.13±10.04		81.78±13.93		44.24±10.06		53.26±7.23	
	Person-centered ^c	230	81.44±11.14		89.76±12.89		50.50±11.33		56.61±7.92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a	5	86.60±5.22	6.60** (.002) c<a	99.20±12.68	9.33*** (.000) c<a	56.60±14.89	8.71*** (.000) c<a	58.60±10.81	4.36* (.014) c<a
	Satisfactory ^b	142	82.05±10.94		90.56±12.19		51.46±10.41		56.71±7.80	
	Not satisfactory ^c	149	77.50±12.07		84.58±14.21		46.36±11.81		54.01±8.46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a	99	84.16±11.22	11.97*** (.000) b,c<a	94.31±12.49	23.21*** (.000) c<b<a	53.83±10.47	16.49*** (.000) c<b<a	58.49±7.06	12.59*** (.000) b,c<a
	Neutral ^b	166	78.16±10.79		85.33±12.59		47.19±10.73		54.20±7.83	
	Dissatisfied ^c	31	75.00±13.78		79.23±13.93		43.06±13.29		51.74±10.99	
Motivation of admission to college	Recommendation of others ^a	33	76.76±9.00	8.13*** (.000) e<b,d	84.30±14.42	8.32*** (.000) e<b,d	45.97±14.33	6.98*** (.000) a,b,c,e<d	52.30±10.67	5.59*** (.000) e<b,d
	Own decision ^b	153	83.12±10.93		91.68±12.95		51.20±10.34		56.99±7.92	
	For employment ^c	80	76.34±11.44		82.85±12.03		44.71±10.12		53.71±7.01	
	Service job ^d	12	81.33±13.64		89.17±12.16		57.67±11.24		60.08±7.91	
	Economic reason ^e	18	72.11±13.47		80.61±15.19		48.78±13.91		51.67±7.76	

*p<.05, **p<.01, ***p<.001

3.4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감성지능은 회복탄력성($r=.681, p<.001$), 외상 후 성장($r=.526, p<.001$), 의사소통능력($r=.65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은 외상 후 성장($r=.670, p<.001$), 의사소통능력($r=.65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상 후 성장은 의사소통능력($r=.53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96)

Characteristic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TG
Emotional intelligence	1		
Resilience	.681***	1	
PTG	.526***	.670***	1
Communication skill	.654***	.657***	.532***

*** $p<.001$

3.5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1.9%로 나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04.878, p<.001$). 즉, 감성지능($\beta=.371, p<.001$), 회복탄력성($\beta=.324, p<.001$), 외상 후 성장($\beta=.120, p<.05$)은 의사소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면 의사소통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skill (N=296)

Characteristics	B	SE	β	t	p
Emotional intelligence	.263	.040	.371	6.628	.000
Resilience	.197	.039	.324	5.055	.000
PTG	.086	.040	.120	2.169	.031
$R^2=.519, Adj. R^2=.514, F=104.878, p=.000$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12,15]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것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에 있어서는 종교,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 Lee [29]의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경우 회복탄력성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는 종교,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아직까지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폭력경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외상(trauma)에 집중한 연구가 다수이고, 긍정적 측면으로 여길 수 있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선행연구[21]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가 있었고, Gwon [22]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차이는 Gwon [22]의 연구결과 종교에서 외상 후 성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이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외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대상자와 유사한 외상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외상을 경험한 간호사는 자존감 저하, 소진,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전문직으로서의 삶의 질이 저하되며 이직의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22]. 그러므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는 경제상태,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Lee & Gu [30]의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만족도, 간호학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대학생활만족도와 간호학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도 높음을 설명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12,13]의 결과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28]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상대를 배려하려는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또한 회복탄력성은 의사소통능력($r=.65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Hong [10]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Park & Chung [31]의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을 조사한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렇듯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은 의사소통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1.9%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04.878$, $p<.001$). 즉, 감성지능($\beta=.371$, $p<.001$), 회복탄력성($\beta=.324$, $p<.001$), 외상 후 성장($\beta=.120$, $p<.05$)은 의사소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면 의사소통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이론 교과목에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Yang, S. Y.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9), 286-296.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9.286>
- [2] Kim, N. H. (2018, Jun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735-744.
- [3]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http://www.kabone.or.kr/>
- [4] Park, J. W. (2000). The Experiences of Psychiatric Patients about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Behavio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9(1), 35-43.
- [5] Bramgal, E. (2014).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Practice. *Nursing Standard*, 29(14), 53-59.
- [6] Boykins, A. D. (2014 Spring). Core Communication Competencies in Patient-entered Care. *The Association of Black Nursing Faculty Journal*, 40-45.
- [7] Zavertrnik, J. E. & Munro, C. L. (2010). Innovative Approach to Teaching Communication Skills to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9(2), 65-71.
- [8] Kim, H. M. (2009).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4), 399-408.
- [9] Yoo, M. S., Kim, Y. S., Hwang, M. S., & Ahn, J. A. (2012). Analysi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care Communication*. 7(1), 18-27.
- [10] Hong, S. K. (2017). Influence of Humanistic Knowledge and Resilience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care Communication*, 12(2), 189-200.
<http://dx.doi.org/10.15715/kjhcom.2017.12.2.189>
- [11] Lim, J. S.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Employee Attitude and Behavior: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Organizational Personality,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12] Choi, E. J. & Son, Y. L. (2017 September).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5(3), 915-924.
DOI: <http://doi.org/10.15205/kschs.2017.09.30.915>
- [13] Lee, O. S. & Gu, M. O.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2759.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14] Lee, O. S. & Gu, M. O.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44(6), 682-696.
<http://dx.doi.org/10.4040/jkan.2014.44.6.682>
- [15] Shin, E. J. & Park, Y. S. (2013).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5636-5645.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16] Baek, H. S., Lee, K. U., Joo, E. J., Lee, M. Y., & Choi, K. S.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Psychiatry Investigation*, 7(2), 109-115.
- [17]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18] Song, S. H, Lee, H. S, Park, J. H, & Kim, K. H. (200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1), 193-214.
- [19] Song, H. & Lee, Y. S. (2017). A Analysis of Posttraumatic Growth Processes Structural Relationship,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4), 573-591.
- [20]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1 - 18.

- [21] Park, J. W. (2016).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Growth by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4), 285-295.
https://doi.org/10.17547/kjsr.2016.24.4.285
- [22] Gwon, M. G. (2016).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of Nurses*,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 [23] Li, Y., Cao, F., Cao, D., & Liu, J. (2015). Nursing Students' Post-traumatic Grow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2, 326 - 332.
- [24] Wong, S. & Law, S.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274.
- [25] Connor, K. M., & Davison, J. 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26] Rubin, B., Palmgreen, P., & Syher, E., (1994), *Communication research measures : a source book*, New York, Guilford Press.
- [27] Hur, G. H.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8] Lee, M. J. (2016). *Occupational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among clinical nurses*,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29] Jeong, Y. H. & Lee, K. H. (2016). Effect of Verbal Abuse Experience, Coping Style and Resilience on Emotional Response and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391-399.
- [30] Lee, O. S. & Gu, H. J. (2018). Differences in Smartphone Addic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375-383.
- [31] Park, J. H. & Chung, S. K. (2016).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36-244.

김미자(Mi-Ja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감염관리, 스트레스, 재난
- E-Mail : kmija67@daum.net